
충청남도 탄소중립·탈탄소 국제 컨퍼런스

- '22.9.6(화) 예산 스플라스 리솜 / 기조연설 -

여러분 반갑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상협입니다.

우선 “충청남도 탄소중립·탈탄소 국제컨퍼런스”에
초대해주신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그야말로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같이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자연 재난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비단 자연변화에 대한 인식 차원을 넘어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30년간 275조달러가 투입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전 세계 GDP의 18%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를 유발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인간이 남용하는 화석연료이며
그 중에서도 석탄이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발전의 발전 비중은 34.1%로
전체 발전량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석탄 34.1%, 가스 29.2%, 원자력 27.4%, 신재생+기타발전원 9.5%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를 따져보아도

석탄은 1테라줄(TJ) 당 98ton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화석연료인 석유(73ton), LNG(56ton) 등을 압도합니다.

※ IPCC 국가 인벤토리 기본 배출계수(2006)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이 곳 충남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억 5천만톤('19)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기가 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도 파리기후협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 이용률을 2030년까지 2019년 수준 대비 79%까지 줄어야 한다고 경고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 의존을 낮춰야 합니다.

이렇듯 지구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그간 유지해 오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산업, 에너지
패러다임을 대폭 전환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기후 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흡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
다시 말해 ‘넷제로(net-zero)’로 만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2015년 당사국 총회 이후
6년만에 개최한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0개국 정상들이 모여 지구 온도 1.5℃ 이내 상승 억제를 위한 범세계적 기후 행동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저감장치 없는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노력한다는 문구가 명문화되는 등

기후 위기 주요 원인인 석탄을 감축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새정부에서도 그간 이념뿐이던 탄소중립에서 벗어나 점진적·기술적 실제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에 함께해야 합니다.

첫째 에너지 정책은 저탄소, 탈석탄을 우선시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정을 통해
시나리오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으나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책임있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나리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원 믹스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2050년까지 모든 화석연료 발전을
전면 중단할 수는 없을지라도

석탄을 최우선적으로 줄이고
원전의 역할을 일정 부분 증시하는 가운데
탄소 제로인 재생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력망 투자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감축 수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목표를 반영하되
노후석탄 발전기 18기를 폐지하는 방향이
제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기후위기를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되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기술(R&D) 개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주력사업의
탄소중립 한계 기술을 돌파하고
그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셋째 녹색금융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기후 리스크는
자연재해로 인한 물리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초자산인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투자손실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재무적 손실뿐만 아니라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도 영향을 주는 등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서는
자금줄 역할을 하는 녹색금융이 중요합니다.

그린워싱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녹색분류체제를 새롭게 보완하고
녹색 전환을 위한 설비자금 지원, 자금 융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탄소중립의 길은
지속가능한 세상,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의 미래상인 2050년 탄소중립 시대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고
불확실하게 느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모든 국민과 소통하고
평생 환경교육을 통해
탄소중립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은 힘들지만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 세계가 합심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